

전남 RPC 2년 연속 4000억대 매출

(미국종합처리장)

19개 시·군 26개 설립...쌀 생산 농가 판로 고민 덜어줘 영광통합RPC 500억...담양·나주 등 노후 RPC 통합 추진

전남지역 26개 미국종합처리장(RPC)가 2년 연속 4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쌀 생산 농가의 판로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15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RPC의 쌀 판매금액은 4174억9600만원을 기록했다.

전남에는 19개 시군에 26개의 RPC가 설립돼있다. 이 가운데 통합RPC를 운영하는 지역은 강진·구례·무안·보성·순천·영광·영암·장성·장흥·함평·해남 등 11곳이다.

1990년대 본격적으로 전국에 세워진 미국종합처리장은 반입에서부터 선별·계량·품질검사·건조·저장·도정을 거쳐 제품 출하와 판매, 부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과정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

다. RPC는 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며 미국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17년 3375억9000만원(판매량 28만3339t)이었던 RPC 쌀 매출은 이듬해 29.7% 증가하며 4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설립 10년을 맞은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영광통합RPC)은 전남 26개 RPC 가운데 처음으로 연 50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500억원 상당 매출을 올리려면 20kg 쌀 120만 포대를 팔아야 한다는 것이 영광RPC 측 설명이다.

영광통합RPC는 지난 2009년 12월 영광농협, 백수농협, 서영광농협, 굴비골농협 등 4개 농협이 출자해 만들어졌다.

영광통합RPC가 판매하는 쌀은 영광지역에서 생산된 쌀 전량으로, 연 7만여t의 쌀을 매입·판매하고 있다. 영광RPC 측은 고품질·단일품종쌀 생산을 위해 철저한 농가 계약재배를 지켜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단일품종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렸고 영광 친환경쌀 브랜드 '사계절이 사는 집'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에 선정됐다.

강진·장흥·해남지역 RPC는 농협 전남본부와 전남도가 주력하고 있는 전남 쌀 품종 '새창무'를 지난해 11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새창무 생산자연합회는 같은 달 고순도 새창무 공급가격을 40kg(조곡)당 7만원으로 결정하고 본격 판매에 나섰다.

이들 RPC는 각각 '탐진강 찰진쌀 새창무' '장남진 새창무' '땅끝쌀' 등 새창무 품종 브랜드를 개발했다. 지난해 새창무 품종 브랜드 판매금액은 총 5억

2500만원(판매량 199t)으로, ▲정남진통합RPC 3억1900만원(113t) ▲강진통합RPC 1억3500만원(58t) ▲해남황산농협RPC 7000만원(28t) 매출을 올렸다.

전남본부는 올해 노후화 된 RPC간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담양 2곳(금성·수북)과 나주(남평·다시·동강·마한) 4곳 등 6개 농협RPC를 각각 통합하며 노후 시설을 버건조저장시설(DSC)을 도입하는 등 현대화한다는 것이다. 전남본부 측은 통합RPC 체제로 운영하며 지역 전체 원료곡을 확보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석기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쌀 판매 500억원 달성을 거둔 영광통합RPC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라며 "전남본부는 전남쌀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경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30.98 (-7.90)	↑ 금리(국고채 3년) 1.39 (+0.01)
↑ 코스닥 679.16 (+0.45)	↑ 환율(USD) 1157.00 (+0.90)

광주은행 '2020년 1분기 경영전략회의'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15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송 행장과 임원, 부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1분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본부별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영업본부와 지점, 직원 등에 대해 시상했다. 앞서 이진수 NHN 대표이사를 초빙해 특강 교육도 진행했다.

송 행장은 "고객차지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지역민과 함께 동행하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차 노사, 임금협약 2차 잠정합의

기아차 노사가 지난 14일 경기도 소하리공장에서 19차 본교섭을 열어 '임금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15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추가 합의된 주요내용은 ▲사내복지기금 10억원 출연 ▲휴무 조정(3월2일 근무-5월4일 휴무로 조정해 6일간 연휴) ▲잔업 관련 노사 공동TFT 운영 합의 등이다.

노사는 앞서 지난해 12월10일 1차 잠정 합의안으로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30억원 출연 등에 합의했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17일 실시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극복에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교섭을 마무리하고, 신차의 적기 생산 및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백년가게' 5곳 추가 선정

광주 송곡·여수 대성식당 등 31곳으로...국민추천제 도입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인 광주·전남지역 '백년가게' 5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 백년가게는 총 31곳으로 늘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19년 5차 선정위원회'를 열어 백년가게로 광주 3곳, 전남 2곳 등 46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는 음식점으로 광주시 광산구 떡갈비전문점 '송곡' (업역 43년)과 삼치회가 주 메뉴인 여수 '대성식당' (33년)이 선정됐다. 도소매업으로는 광주 동구 아씨주단(30년), 서구 사문꽃농원(40년), 순천 통닭정육점(33년)이 지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지역 백년가게 수는 광주 10곳, 전남 21곳 등 총 31곳으로 늘어

났다. 백년가게는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업력 30년 이상 된 가게 중에서 경영자 혁신의지, 제품·서비스 차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중기부가 백년가게 확인서와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민간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플랫폼-한국관광공사 웹페이지에도 등록된다. 방송을 통한 홍보와 컨설팅·교육·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국민들과 함께하는 백년가게'를 만들기 위해 백년가게 선정시 국민 추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h.or.kr)과 백년가게 육성사업 누리집(100year.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취업자 7000명 증가

고령층·단시간 위주 두드러져

호남통계청 12월 고용동향

지난 달 광주지역 취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7000명 늘었지만 고령층과 단시간 위주 증가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5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75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00명(0.9%)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연말 취업자 증가폭 대부분은 단시간 고용이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 보다 2만9000명이나 늘어난 14만7000명으로, 증가율은 24.7%에 달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전년보다 3.2%(2만명) 줄어든 60만명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단시간 고용 위주인 도 소매·숙박·서비스업 부문 취업자가 1만 2000명(7.6% ↑) 증가하고, 농림어업도 1만명(129.7%) 늘었다.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와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은 뚜렷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광주지역 연령대별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율은 9.2%로 2013년(11.4%) 이후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20대(-0.5%), 30대(-1.6%), 40대(-3.1%)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그룹장 정민식·왼쪽 왼쪽 5번째)는 지난 14일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정섭·왼쪽 6번째)과 올해 첫 '광주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5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광주신보 제공>

광주신보, 올 누적 출연금 2000억 전망

지난해 소상공인 4100억 보증

KEB하나은행, 신보에 5억 출연

지난해 소상공인 등에 4100억원대 보증지원을 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올해 누적 출연금 2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과 KEB하나은행은 1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광주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광주신보에 5억원을 출연하고 신보 측은 출연금의 15배에 달하는 75억원 상당을 소상공인에 신용보증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광주신보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광주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연 2.064%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운전자금 최대 2억원 상당의 대출을 지원한다. 광주신보는 금액에 따라 5년 이내로 최대 100% 전액보증서를 지원한다.

이 출연금을 기반으로 광주신보는 2017년 3568억원(1만7976건), 2018년 3629억원(1만6991건), 2019년 4144억원(1만7862건) 등 2조4680억원(13만 2515건)의 보증을 지원했다.

협약보증 지원을 원하는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자치구별 5개 지점 또는 KEB하나은행 11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은 "장기 경기 침체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단한 실정"이라며 "광주신보가 서민의 금융안전망 역할에 충실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보는 광주시 등 6개 자치단체와 시중은행·지역농협 등 11곳 등 20여 기관으로부터 2017년 100억원, 2018년 121억원, 2019년 159억원 등 1808억3300만원의 출연금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